

65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 추천 결의

교단 정책위원회

교단 정책위원회(위원장 조용목 목사)는 지난 4월 21일(목)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인양정전에서 모임을 갖고 65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의뢰가 공식 요청됨에 따라 임원후보자를추천하는 등 총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했다.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유봉수 목사의 대표기도,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마 7:21-2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다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끝으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임원



후보자를 헌법규정에 의거 천거하도록 했으며, 당회 동역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이 목회승계를 위해 담임목사를 세우고 일정기간



‘필요한 질문과 필요 없는 질문’



조용목 목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창 22:1~4)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하여 건전한 욕구에서 비롯되는 질문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을 깊이 알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요구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질문에 관련하여 우리는 상반되는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기 위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자들의 부패와 백성의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파멸하게 될 것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탄식했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을 알자 함은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접하였고 성경에 능통했지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와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충요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깊이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 인생관이 달라 집니다.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가지는 질문 가운데 가장 귀중한 질문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땅에 엎드려서 물었던 “주님은 누구십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일생 동안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 성경을 늘 묵상하고 상고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질문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행시는 일에 대하여 ‘어찌하여’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여러 날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하여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출 32:11~13) 하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앙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간구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한 ‘어찌하여’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언히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이유가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숭배를 한 이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진정 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어찌하여’라는 말은 간과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탁월한 점은 하나님의 지시에 대하여 “왜”라고 묻지 아니하는 태도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청전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나 요구에 대하여 질문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경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성과 언약과 뜻을 더 많이 알기를 소원하여 성령에 질문하고 가르쳐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시는 일과 명령에 대하여 어떠한 질문도 필요치 않고 소망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선거관리위원회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찬 목사)는 지난 4월 28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정책위원회에서 추천된 총회 임원 후보자들에 대한 임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위원장 김인찬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하여 제출된 총회장 후보 조남영 목사, 부총회장 후보 김갑신 목사, 총무 후보 최형택 목사, 서기 후보 홍현철 목사, 재무 후보 조원재 목사, 회계 후보 안재홍 목사 등 후보자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요건 및 제출된 서류가 다 갖춰져 있어 후보자들 모두 그대로 받기로 하고 총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목양신문에 공고할 것을 결의했다.

임원 자격요건 면밀히 검토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6일(월) 총회 임원선거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은 오일선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고시위원회

선교사 3명 목사안수 자격심사,
65차 총회에 상정키로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목사)는 지난 5월 3일(화)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선교사 목사안수와 관련 자격심사를 갖고 중국 2명, 필리핀 1명에 대하여 65차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고시위원회는 선교사 목사안수 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선교사 3명에 대한 총회 상정을 결의했다.



제65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 공고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5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를 교단 헌법 제84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회장 후보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부총회장 후보



김갑신 목사
새여수은혜와진리교회

총무 후보



최형택 목사
광양은혜와진리교회

서기 후보



홍현철 목사
은혜충만교회

재무 후보



조원재 목사
풍암순복음교회

회계 후보



안재홍 목사
순복음만남의교회

2016년 5월 2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김인찬
서기 목사 정의섭

한교연 장애인연합예배 및 문화축제 개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지난 4월 28일 한국교회백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와 문화축제 행사를 가졌다.

한교연 장애인익위원회(위원장 김양원 목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신망에 재활원을 비롯, 복지재단 엘리엘동산, 호세이동산, 베데스다선교회, 두리원, 밴엘의 집, 참누리 요양원, 한바움 일터 등 장애인단체와 교회 장애인부 소속 장애인 2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장애인과 함께 나누는 행복”을 주제로 개최됐다.

1부 예배는 준비위원장 유석훈 목사의 사회로 서종로 장로(부위원장)의 대표기도와 홍찬국 목사(부위원장)의 성경봉독, 위원장 김양원 목사의 ‘장애인을 창조하신 목적’ 제목의 설교에 이어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환영사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을 대신해 원웅기 종무실장이 축사를 전하고 베데스다선교회 대표 양동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환영사에서 “흔히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라 칭하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불리를 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 보다 열등하거나 모자라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장애인들을 동정의 대상이나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소중한 사람들로써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돌보고 배려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양원 목사는 설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가난한 사람 질병있는 사람, 그리고 장애인은 존재할 것”이라며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과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문화축제는 CCM가수 애드의 공연과 찬양가수 최수경 집사의 찬양

에 이어, 두리원 두리난타팀의 난타공연, 시각장애인 찬양팀 소리보기의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교연 장애인익위원회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신도들이 장애인에 대해 바른 표현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예를 들어 불구가 장애자 지체부자유자 장애우는 “장애인”으로 정상인 성한 사람은 “비장애인”으로, 절름발이 반신불수 굶추 등은 “지체장애인”으로, 난쟁이는 “저신장애인”으로, 장애인 봉사 소절은 “시간장애인”으로, 귀머거리는 “농인”으로, 병어리는 “언어장애인”으로 문둥이, 나병환자는 “한센인”으로 언어를 순화해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독교천사운동연합 총재 취임예배

정인찬 총재, 은퇴목회자 생계비 지원 등 사역 확대

목회자 유가족과 은퇴 목회자를 돕고있는 기독교천사운동연합(사무총장 김수배)이 초대 총재로 정인찬 목사(웨스트민스 트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를 추대하고 지난 4월 17일 오후 2시에 부천 갈보리교회(조예환 목사 사무)에서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조예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김수배 사무총장이 정인찬 총재에게 추대패를 증정하는데 이어 김윤서 목사(찬양교회 담임)와 공보길 목사(명지대 교수)가 축사를 했다.

기독교천사운동연합은 2011년에 조직되어 그동안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중에 불의의 사고로 소천한 고 병효원 선교사의 어린 유자녀 돕기, 이집트 폭탄 테러로 순교한 고 김진규 목사 유가족 돕기 등 찬양 콘서트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돕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목회자 유가족(홀사모) 및 생활이 어려운 은퇴 목회자 생계비 지원, 장례비 지원 및 전염 남몰당 운영 등 점차적으로 지원사역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정인찬 총재는 미주 기독교총연합회 대

표회장, 한인계세신교협의회(KWMC)대표회장, 휴스턴한인교회 담임목사, 휴스턴 신학대학장, 배석대학교 목회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웨스트민스 트신학대학원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구세군, ‘사랑의 도서 기증사업’ 진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로 6년째

구세군자선냄비본부(사무총장 이수근)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로 6년째 ‘사랑의 도서 기증사업’을 진행하며 전국 문화 소외계층에 양서를 전달한다고 전했다.

《사랑의 도서 기증사업》은 국내 출판사에 쌓여 있는 반팔도서, 구정가도서 등 “읽을 수는 있으나 판매가 어려운 도서”에 대하여 기부 체계를 마련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국 출판사들이 후원한 도서를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도서관에 지원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에게 양서를 읽을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정서함양 및 희망을 노래하고 꿈을 이루어 갈 계기를 마련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지향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2011년 시작된 《사랑의 도서 기증사업》은 문학, 예술, 문학, 과학, 경제, 역사, 명화, 전래동화 등의 도서로 총 145곳의 출판사가

참여하였으며 약 70만권의 도서를 기증받았고 구세군자선냄비본부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도서전’을 통해 340곳의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도서관들에게 전달됐다.

자선냄비본부 이수근 사무총장은 ‘사랑의 도서 기증사업’을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과 이웃주민들이 양서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양서를 통해 꼭 꿈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제13회 호헌신학포럼 개최

예영수 박사 신학과 문학의 만남 주제로 강의



호헌총회신학은 지난 4월 19일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신학과 문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제13회 호헌신학포

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앞서 드린 예배는 오동환 목사의 사회로 김진숙 목사의 기도, 최현희 목사의

성경봉독, 도길음 목사의 특별찬양, 이형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계속해서 조조복 목사의 격려사, 총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 오동환 목사의 광고, 오다윗 목사의 축도로 마친 후 강의가 시작됐다.

이날 강사 예영수 박사(국제크리스천학술원 원장)는 ‘신학과 문학의 만남’이라는 주제강의를 통해 “과거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의 행동이 일생을, 말 한마디가 평생을 좌우한다”고 말하고, “선한씨음의 승리를 위해 힘써나가지”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호헌총회신학은 1962년 칼빈주의에 입각한 기독교학문의 연구와 그 실천방법의 실현을 위해 개교했다.

박원순 시장 퀴어축제 허가는 직권남용

혐오감 주는 행위…서울광장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

탈동성애 인권단체들이 동성애 퀴어축제 의 서울광장 사용을 또 승인한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을 규탄하는 한편, 퀴어축제 기간 중 올바른 성문화 회복을 위한 ‘홀리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이진호 회장)와 탈동성애인권포럼(상임대표 이요나 목사) 외 37개 단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소동이 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난했음에도 정작 자신은 시장의 권력을 남용하여 대다수 서울시민들이 반대하는 퀴어축제를 허가함으로써 불통시장임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 시장은 서울광장 사용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사용 신고가 들어오면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뻔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



다”며 “서울광장조례에 서울시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영리 목적의 광고·판매행위,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서울광장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서울광장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불법적인 행사내용을 너무나도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광장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시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퀴어축제 기간 국민들에게 동성애의 폐해와 탈동성애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3회 홀리 페스티벌 도개최한다

한국교회 변화와 개혁위해 한마음되어 기도

개신교협 제8차 정기총회 개최



(사)한국개신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형렬 목사)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1시 평안교회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사장에

양정은 목사를 선출하고 신년도 사업안과 세입, 세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동 회의는 이날 세미나 등 모든 안건은 새롭게

선출된 임원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총회 1부예배는 이사 임정태 목사의 사회로 이영춘 목사의 기도,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빌 2:1-8절을 본문으로 한 ‘사람으로 뜻을 합한 총회’라는 제목의 설교, 나라와 민족 그리고 형제회 발전을 위한 정광용 목사의 특별기도, 이사장 양정은 목사의 축도로 순으로 진행됐다.

이사장 양정은 목사의 사회로 개최된 2부 회의는 김영의 목사의 기도에서 회원점령 후 절차보고를 비롯한 각종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동 회의회는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 대표이사(이사장)에 양정은 목사, 이사에 임정태 목사·전병욱 목사·양정섭 목사·박형렬 목사·조익수 목사·김영의 목사를 감사에는 한성옥 목사·이순녀 목사를 각각 선출했다.

국정협, 총재 이·취임식 개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명예총재 정운찬 전 국무총리 취임

국정협은 지난 4월 25일 오전 11시 팔레스타인에서 중앙위원, 참전 진목단체 대표, 한기총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총회 및 총재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박세환 전인총재(전 재향군인회장)와 엄인형(전 7대종단 대표회장) 신임총재의 이·취임식을 거행하고, 명예총재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새로 취임했다.

앞서, 상임 부총재에는 김춘규(사령의손장기 이사장)와 이성립(전 예총 회장)이 선임됐다.

또한, 총회에서는 상임고문으로 박세환(전 재향군인회장), 류기남(자유시민연대 대표), 구제태(재향경우회 중앙회장), 김정재(자유총연맹 총재), 김일주(전 국회의원), 김재창(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김진영

(대한민국 성우회 회장), 김진홍(전 뉴라이프 대표), 김현욱(전 민주평통 수석부회장), 박희도(대불총 대표회장), 류태영(농촌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안응모(전 국정원장), 양창식(전 해군사령관), 이용규(전 한기총 대표회장), 이정린(전 국방차관), 손영구(탈북난민보호뉴욕협회 회장)이 유임 및 선출됐다.

세기총, 4회기 맞으며 새로운 전기 맞아

기독교 중심 지역인 종로 5가로 사무실 확장 이전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시영 목사, 이하 세기총)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세기총은 지난 4월 25일, 기독교의 중심지인 종로5가에 사무실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904호실로 확장 이전했다.

이날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는 세기총 수석상임회장 황의춘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원종문 목사의 기도, 공동회장 박광필 목사의 성경봉독, 직전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의 설교,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의 인사말, 한교연 명예회장 김윤기 목사의 축사, 초대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의 축도,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광고, 법인이사 유영식 목사의 오찬기도로 진행됐다.

김요셉 목사는 합 2:1~4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에 서라’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당시 이스라엘 사회와 같이, 오늘날 지구촌도 총체적 혼란과 타락에 빠졌다”며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사명의 현장을 상징하는 성령에서 서서 세계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명의 현장에 진실한 파수꾼이 없는 이 때에, 우리 세기총이 생령 목장의 사명자가 되어 새로운 비전과 산 믿음을 제시해야 하며, 모든 것이 민감하여 시대의 조류를 알아야 한다”며 “자부심을 갖고 이 일을 위



해 헌신해 달라”고 권면했다.

고시영 목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기총 설립 및 운영과 이번 사무실 이전을 위해 수고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한국교회에 한기총과 한교연이 양대산맥으로 있지만, 세기총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정체성을 갖고 일할 것”이라며 기도와 창조적 대안 제시 및 비전을 부탁했다.

김윤기 목사는 “세계 750만 디아스포라를 주 안에서 끌어안고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보며 참 기쁘다”며 “낮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세기총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세기총 사무실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750만 디아스포라가 함께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전 세계로 나아가자’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세기총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해 온 한인교회와 기독교기관 및 단체, 선교사회 등 주 안에서 형제된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를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교회의 주요 단체와 교단의 사무실이 모여 있는 종로5가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됐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슬람·동성애법 저지를 위해 한 마음 되어 기도

민족복음화와 지역발전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아산시 조찬기도회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아산시 조찬 기도회

일시: 2016년 4월 30일(토) 장소: 온양관광호텔 다이아몬드홀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진등용 목사의 축하패 증정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예하성 총회장)는 지난 4월 30일(토) 오전 7시 온양관광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민족복음화와 지역발전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갖고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이슬람침투 저지를 위해, 동성애법 저지를 위해 한 마음 되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예하성 총회장)의 대회사, 상임회장 이승수 목사의 대표기도, 총무 안홍규 목사의 성경봉독, 도대표회장 연영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대회사에서 "민족복음화운동은 이 민족을 살리는 운동이요 교회부흥운동이요 애국애족운동이요 경제부흥운동이며 지역발전운동"이라고 전하고 "국가안보의 위기상황과 차별하



지법, 동성애법, 이슬람관련법 등 국가와 민족, 한국교회가 매우 어려운 이때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함'을 감사드리고 이 같은 기도의 운동이 확산되기를 당부했다.

연 목사는 롬 11:36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과 인간'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

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2부 기도회는 상임회장 조이철 목사의 사회로 '민족복음화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상임회장 임용석 목사, 상임회장 임기석 목사, 상임회장 임은석 목사, 성서화운동본부장 이정팔 목사가

각각 주례별 기도를 인도했다. 3부 축하순서로는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과 강훈식 시의원이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고분 강상철 목사의 축사,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의 축하패 증정, 고분 김소운 목사의 격려사, 사무총장 차흥식 목사의 광고, 본부장 이두영 목사의 축도 순으로 모든 기도회의 순서를 마쳤다.

기독교역사의 숨결 '강화도 성지순례'

서울 중앙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덕영 목사)는 야외예배 겸 목회에 도움이 되고자 강화도 성지의 땅을 순례하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월례회를 가졌다.

이제까지 지방회에서 야외예배를 가진 이래 처음맞는 쾌청한 날씨와 아름다운 꽃잔치 그리고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벚꽃나무들의 환영인사를 받으며 우리 모든 회원들은 가슴을 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모인 장소로 향했다.

지방회장 김덕영 목사를 중심으로 25명은 먼저 근처 식당을 빌어 예배를 드리고 2부 회부를 마치고 바로 성지순례를 시작하였다.

먼저 강화도와 교동도(島)를 잇는 다리가 연결되어 교동도에 세워진 교동교회를 첫 번 순례지로 정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교회를 찾았다.

현재 예배드리는 현대식 교회는 볼 수 있었지만, 초창기 교회를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성지로 향하는 중에 언덕에 위치한 폐교회를 보게 되었는데 보이는 폐가가 바로 교동 예배당이다.

순간 기독교의 역사의 산물이고 흔적인 기독교성지가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보며 왜 복원을 하지 않고 저렇게 주변의 폐가와 함께 쓰러지고 사라져가도록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불편한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가보려는 마음도 접었다.

이어 두 번째 성지인 교산교회를 도착하니



벌써 관광버스로 한팀이 안내를 받고 있었다. 교산교회는 강화도에 최초(1883년)로 세워진 어머니교회이며, 교산교회의 가장 큰 특색으로는 교인들의 이름 끝 지를 모두 한일(一)자로 개명하여, 개척 전도인으로 일자 돌림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신앙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회복해야 할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강화도의 성교회 성당! 그곳에 넓은 주차장에서 먼저 갈증을 해소하고, 성공회 성당을 올라갔다.

그러나 가는 날이 장날이었다. 한창 복원사업으로 입장 제한지역이 되었다. 우리는 옆문을 통해 들어가 겨우 마당을 밟고 내려오긴 했지만 성지가 관리가 되고 있는 현장을 보니 다

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강화도 땅에 어느 성지는 방치되어 고향이 아닐 정도로 휴가가 되었고 어느 성지는 발굴이 잦은 읍내에 있어 관광지로서의 가치(원고로 성공회 강화성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교회 건물이고, 2000년 11월 축성 100주년을 맞았고 정부는 2001년 1월 4일 사적 424호로 지정했다. 서울 정동제일교회 문화재예배당에 이어 두 번째다)가 있다하여 보수를 하며 관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보며 왠지 쓸쓸한 마음으로 순교자를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녁식사로 화끈한 짜짜찌 볶음을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국내의 기독교 성지를 순례하고 현장을 돌아 보면서 140년이라는 그리 길지는 않은 세월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굴곡의 세월을 지내며, 수많은 이쁨과 역경을 지냈을 뿐 아니라,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감동적인 신앙과 그 정신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성지순례를 하며 돌아보는 기독교의 성지와 박물관의 보관 상태는 원지 부족하고 관리가 허술한 것만 같아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라키는 각 교단에서 이러한 역사의 현장들을 찾아 연구하고 잘 보존하여 후대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면 점점 잃어가는 신앙의 정체성과 흔들리는 신앙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아쉽다.

정기지방회 주의 종의 소명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는 지난 3월 31일 순창순복음교회(담임 김종호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갖고 한 회기 동안 헌신한 임원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한 회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들을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상운 목사(성광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희수 목사(은혜사랑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최강욱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성경봉독, 증경지방회장 김종호 목사(순창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9:9-13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소명을 받은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순종하여 이 길을 가고 소명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

닫고 가자'고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표재욱 목사(성령암곡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각종 보고사항과 결의사항 등 회무를 처리하고 새롭게 전북지방회를 위해 일할 임원을 선출하였고 모든 회무를 은혜기운에 잘 마쳤다. 전북 지방회장으로 선출된 최병진 목사

의 헌신으로 오찬을 나누고 지방회 회원들과 강전산 등반을 함께 한 후 사우나에서 피로를 풀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번에 선출된 신임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최병진 목사, 부회장 유관영 목사, 총무 김상운 목사, 서기 최강욱 목사, 회계 김희수 목사



복있는교회 창립 7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땅끝까지의 복음전파 위해 충성 다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담임 서경오 목사)는 지난 4월 30일(토) 오전 11시 교회정립 7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 헌신할 임원들을 세우고 땅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충성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박흥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김희진 목사의 대표기도, 재무 최정용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살전 5:19-28 말씀을 본문으로 '느끼고 깨닫고 지켜야 할 성령의 사명'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채워진다'고 전하

고 임직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담임 서경오 목사 집례로 임직자에 대한 서약, 안수기도, 악수례, 공포가 있었으며 축하 순서로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의 축사, 부회장 신동숙 목사의 권면, 증경회장

김기인 목사의 임직증서 수여, 담임 서경오 목사의 임직배증정, 회계 정미자 목사의 헌금기도, 김형자 전도사의 헌금특송, 담임 서경오 목사의 인사 및 광고,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 생명의 말씀 ■



강 태 진 목사

· 전 안동시기독교연합회장
· 대구경북지방회 중경회장
· 안동성곡교회

세상에는 새로운 삶을 경험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새 학교에 입학, 새로운 직장에 취업, 군 입대, 결혼 생활은 새로운 경험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누구나 하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경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롬 6:3-5)

결혼도 연합이지만 완전한 사람끼리 연합이 아니라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50대 50의 만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조건입니다. 특별한 상대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18)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은 50+50이 아니라 100대0입니다. 특히 구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엢 2:8, 9)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다른 복음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8, 9)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조건임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 4:12)

그렇게 말했지만 당시에 유대인은 구원도

할례를 받는 문제로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이 나타나자 황급히 피해 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 대 선배인 베드로 사도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갈 2:14) 진리는 어느 누구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가 일정 부분 요구됩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가톨릭이 큰 집, 기독교는 작은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가톨릭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과 신약 속 성경입니다. 특정 종파나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큰 집이고 가톨릭은 다른 집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으로

모든 갈등과 오해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하여 낙담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보여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5-27)

가톨릭의 발원은 성경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주후 31년 밀라노 칙령으로 끝나고 주후 38년에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국교로 선포된 배경은 당시 다양한 종교가 범람한 로마를 종교로 규합하여 정치적인 힘을 얻고자 기독교란 이름으로 정치적 조직인 가톨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독교는 급속히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기독교인은 그들과 섞일 수 없으니 가혹한 박해와 처형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악명 높은 종교 재판입니다. 이 종교재판으로 600년간 무려 5,000만 이상이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합니다.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결국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럽 인구가 대략 5,000만이었으니 대살륙인 것입니다. 아직도 열배무런 사과는 있어도 정식 사과는 없습니다.

천주교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 뚜렷하게 타락합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의 신격화와 아기 예수, 요셉을 교회의 수호신으로 세웁니다. 누가 세웁니까? 가톨릭이며 교황입니다. 즉 교황이 세웠으니 교황이 세운 자들 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교황의 방한 기간에 광화문에서 124명의 시복식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교황이 무슨 자격으로 죽은 자에 대해 시복식을 할니까?

가톨릭은 타락이 아닙니다.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입니다. 마틴 루터스 존스 목사는 “가톨릭이야말로 사단이 만든 가장 완벽한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교황은 기독교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교황교일 뿐입니다. 그런데 소위 교계 지도자라는 분들이 가톨릭과 직제 통일이라는 과장망측한 협의기구를 만들어 서명을 했더니 더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혐의해도 가톨릭은 절대로 안 바뀌며 교회가 그 직제에 흡수될 뿐입니다. 가톨릭은 계시록 17장에 기록된 음녀입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적반하장의 이단 세력,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소위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CBS기독교방송, 일부 교단, 일부 대형교회 앞에서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대표적 교단연합기관과 언론의 해체를 주장하는 등, 정상적 종교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집단 시위 행동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자기들의 집단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통해, 스스로 어떤 단체인지를 증명하고 있다.

이는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협박과 도전이며, 한국교회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 패악에 대한 한국교회의 연합된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하겠다.

진리의 담보권을 가진 한국교회에 대한 도전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부정

과 도전으로서, 하나님의 징계도 따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미 신천지교는 그들의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고, 자신들의 행태와 교리도 세상에 밝혀지면서, 그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천지교를 이끌고 있는 이만희는 정통 교단이나 신학교에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는 인물로 이미 언론보도에 의해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이단/사이비를 전전했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보혜사의 이름을 사용하고, 자칭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는 것은 전형적인 사이비 이단들의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피조물인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은, 그를 통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말에 있다가 그 허구성을 발견하고 탈퇴한 사람들로 부터 얼마든지 청취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CBS와 교계 언론들이 심층 보도하자, 이들은 법적 대응으로 나섰지만, 계속하여 패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책자와 유튜브 등을 통해 내부적인 의혹과 문제점이 속속 노출되며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세력이 흔들리고, 내부혼란과 이탈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기독교 단체와 언론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 시위로 위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 기독교는 일치단결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입히는 것을 막고, 선의의 회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고 경계하셨다.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겠다’고 경고하신다.

이단과 사이비의 발호는 곧 종말사건과 현상을 충분히 가능케 한다. 이런 때 일수록 한국교회의 단합과 함께, 진리와 복음을 사수하고, 참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위해 헌신과 충성을 도모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나서서 CBS, 기독교계신문 등 이단에 적극 대처하는 언론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비 이단들과 싸우는 각 교단의 사역자들을 이단으로부터 적극 보호해야 한다. 이단 척결을 위해 한국교회가 일치단결하여 대처해야 한다.

또한 한국교회는 신천지교에 빼졌다가 돌아오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아 새롭게 교육하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역할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대표 김옥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해 것은 고혈압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안천일염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지 않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응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해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20,000원(택배비 2,000원 별도)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태)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수가 갈 빠진 2013~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다량구매 특별 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동 정

성결대, 신임총장 윤동철 교수



성결대학교 신임 총장에 윤동철 교수(60세)가 선출됐다.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성결대학교 제8대 총장에 윤동철 신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윤동철 총장은 성결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나사렛대학교, 드류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다.

나사렛성결회, 제6대 김영수 감독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통합총회 제5~6대 감독 이·취임 감사예배가 4월 25일 오전 나사렛대학교 경관관에서 거행됐다. 김영수 감독은 취임사를 통해 1976년 나사렛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하던 40여 년 전을 회고하고, 통합총회의 수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에 무한한 감사를 표했다.

김영식 총장 대학특성화 추진



백석문화대학교 김영식 총장이 “2년제, 4년제 등 학제의 개념을 없애고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총장은 한국대학신문 주최로 지난달 24일 개막한 ‘대학경쟁력 네트워크(이하 UCN, University Competitiveness Network) 프레지던트 서밋 2016’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성결신문 제11대 사장에



한국성결신문 제11대 사장에 장광래 장로(헤브론교회)가 취임했다. 한국성결신문 운영위원회와 후원회는 지난 22일 총회본부에서 정기총회를 잇따라 개최, 운영위 임원에서 추천된 장광래 장로를 신임 사장으로 인준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장광래 신임 사장은 교단의 자랑인 한국성결신문의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기독교
시론

장헌일 목사

20대 국회는 2030청년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장헌일 목사, 생명나무교회 · 국회NGO모니터단 단장

현재 우리나라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5%, 56만 명으로 3분의 1이 비정규직이 될 역대 최고 수준으로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는 정치권에 고개를 돌린 결과 지난 17·18대 대선, 19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세대가 2030세대였다. 50대, 60대 이상 유권자 투표율보다 20%포인트나 낮았다. 그러나 이제 정치의 무관심과 혐오로는 더 이상 정치가 변할 수 없음을 알았다.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선거혁명이 일어났다. 국민의 승리, 청년의 승리였다.

20대 투표율이 28.1%(18대 총선에서 41.5%(19대 총선)로 드디어 49.4%(20대 총선)로 30대 투표율은 35.5%(18대 총선)에서 45.5%(19대 총선)로 이제 49.9%(20대 총선)로 2030세대 투표율이 이제 50%에 근접했다. 2030세대 청년이 정치의 주변인에서 정치의 주체자로 당당하게 일어섰다.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만 정치권 그들만의 리그전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대한민국의 희망인 청년세대가 선거혁명의 주체자로 일어선 것이다.

20대 총선을 뒤늦게 청년세대 투표율 상승으로 국회 최고의 황금분할을 만들어야 할 것 없이 그 어느 당도 과반수가 되지 않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정치해야 하는 정치교과서를 다시 쓰게 된 자랑스런 청년세대들이 16년 만의 여소아대를 만들었다. 이는 곧 청년세대의 높아진 투표율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이제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의 국가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청년부동층이 차기대통령도 결정할 것이다. 20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에게 희망주는 정책으로 여야는 경쟁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이와 같은 청년세대 투표율 급등은 사전투표제의 도입이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정치권과 청년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답이 없는 나라라고 느끼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청년세대들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할말이나 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잘 뺄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그 분노가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표로 표출된 것이다.

이번에 전국 10개 대학 총학생회가 총선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대학생 · 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적극 투표 참여운동을 전개했다. 특별히 교계에서도 필자와 함께 뜻있는 기독교대학청년들이 모여 기독교대학청년희망포럼을 조직하여 이번 총선에 적극 참여하였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표를 얻고도 청년공약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심판도 이번 총선을 통해 청년들은 그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로 심판하였다. 이번 총선은 그런 청년세대의 요구와 결집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였다.

필자는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2016년 3월 8일 언론을 통해 “한국교회에! 청년이여! 모세의 지팡이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라는 제하에 청년 투표참여로 선거혁명을 이루자 “고 강조하면서 “청년세대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수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구체적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 정당이나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년들은 이를 실천했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갈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도 청년들의 투표참여, 정치세력화 움직임은 더 확대될 전망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초월해 청년과 함께 청년현안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초당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 내 청년정책희망포럼(기청)을 구성하고 청년세대와의 의견수렴과 청년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번 20대 국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태도는 “경청”이라는 키워드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이야기를 먼저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들이 선택한 여야에 대한 관심이 다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이미 지난 20대 총선에서 부쩍 높아진 투표율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제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다.

국제사회도 청년선거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 청년이 주축이 된 포테모스는 스페인 정치권을 바꾸고 있다. 50%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과 살인적인 주거비에 내몰린 스페인 청년들의 분노는 ‘포테모스’라는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작년 총선에서 제3당이 된 ‘포테모스’는 당 대표, 대변인, 의원 모두 20·

30대다.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힘을 실어줬다.

대만도 청년이 정권을 바꾸었다. 금년 1월 열린 대만 총통 선거에서도 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의 힘이 선거판을 뒤엎었다. 청년들의 분노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에게 청년들은 표를 몰아줬다. 젊은 세대를 대표한다는 간판을 내건 신생 정당 ‘시대역량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3당으로 도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대만연구소에 따르면 20~29세 청년 투표율은 74.5%나 됐다. 이베리아 반도와 대만을 휩쓴 청년의 바람이 한반도에도 불기 시작했다.

한국교회도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전 성도가 우리 사회 모든 우상들을 통해 묻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여야 한다. 하나님 나라 정치운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정치이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생명과 복자, 환경과 인권 등 살뜰한 세상을 이루라는 주님의 명령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국회는 포기할 수 없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예수님께서는 마가서 3장 11절에서 애먼자 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돈정치는 자들 돈받고 애곡된 재물을 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의와 사랑, 어렵고 소외된 우리 이웃을 향한 선행 복지 정치를 강조했다.

이제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주는 국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를 비롯한 상시 국회 운영에 직간접 참여하는 국회NGO모니터단 활동에 한국교회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다음세대에게 살만한 나라, 열심히 노력하면 비전이 보이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2030 청년세대들의 주체적 참여를 위해 거침없는 독대학청년아카데미 설립을 서둘러 각 영역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영적 전사를 양육하여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 교회의 거룩성과 공공성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하나되어 말씀과 삶으로 청년세대와 함께 가치를 간절히 바란다.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기독교 청년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목양칼럼

문찬우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호수아교회 담임목사, 캐나다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M. A.), 한세대학교 목회학석사 졸업 (M. Div.), 호서대학교 신학 박사 졸업 (Th. D), 홍익대학교 광고홍보 대학원 과정중

믿음의 득음자

(갈 2:20)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 아무리 외톨이로서나 지식을 곁에 돌리고 눈을 빼앗은 애비가 이 세상에 어딴것인가. 좋은 소리를 할라만 소리를 하는 사람 기습에 말 못할 한을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구요. 하지만 그것도 어디 믿을 말이요?” “이제부터는 네 속에 응어리진 한(恨)에 파묻히지 말고 그 한을 넘어서는 소리를 해라.”

결코 녹록하지 않은 영화, 이정준(1939~2008) 원작의 <서편제>에 나오는 대사들입니다. 이 영화는 일반인의 관점으로는 소박해 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 혹은 예술가의 삶’이라는 특수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영화가 말하는 바를 어렵게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술이란 결국 인생의 본질을 깨내는 작업이고, 인생이란 고통과 비애라는 파토스(pathos)를 알지 못하고는 파악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술이 그 슬픔의 응어리로서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또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만 하는 인생의 더 깊은 본질을 알개워주는 예술의 또 다른 힘을 상실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소리꾼과 한 가지로, 고통을 모르는 신앙인도 깊고 힘 있는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관건은 그 상처를 어떻게 승화시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 헨리 뉴웬(Henri J. M. Nouwen)은 그의 유명한 저서,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

니다. “세상 그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또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상처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이런 상처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처가 그저 부끄러운 과거나 흉터로만 남지 않고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상처 속에서서도 치유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 하늘의 빛을 보고 눈이 먼 뒤에야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 바울 사도의 이야기나 생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된 욥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상세히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면의 어두움을 마주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고,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의 소리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물어 성경은 그런 영적 득음(得音)의 자리에 선 사람들의 고백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 2:20)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했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물었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중략)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 42:3-5) 믿음의 득음자(得音者)들인 바울과 욥의 고백입니다.



시골유제품 사환으로 학비를 벌며 고교전학과 함께 월남참전과 당시 일제의 잔재로서 약자인 농여민의 생존권과 선교의 자유를 억압하던 통행금지 폐지운동, 수세 폐지운동 등 서민의 삶을 대변하다가 투옥되는 등 척박한 삶을 살아온 경험들을 증언하여 잔잔한 감동과 함께 참석자들의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장흥학당은 지난날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초청한데 이어 이철의 감사로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을

초청했고 그동안 이한동 전 총리, 이현재 총리, 천정배 전 법무장관, 동원그룹신화의 김재철 회장 등 정계 재계 경제 문화 교육 등 각계 저명인사들이 장흥학당을 다녀갔다.

이날 평화메달의 공동 수여자는 현 장흥학당 당주이며 군수를 역임한 김인규 변호사와 김성현 장흥군수 지역위원로서 장흥군 유림의장인 노갑기용에게 수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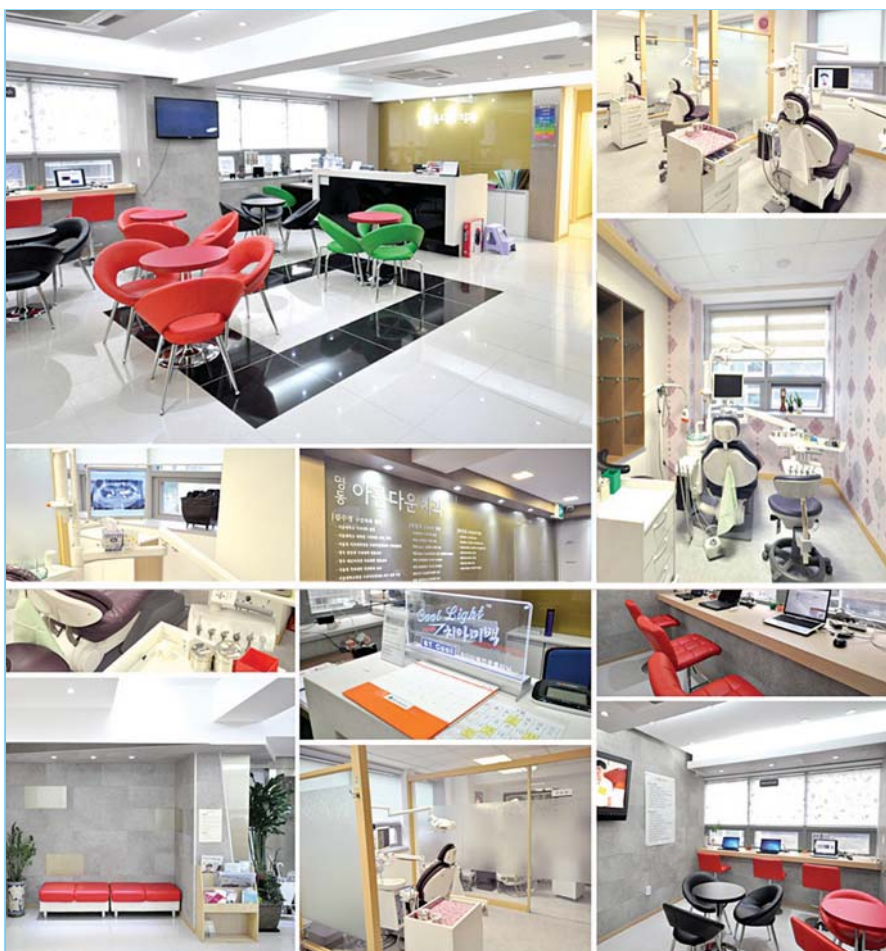
‘장흥학당’ 제485회 명사초청강연회 성료

전 농림부장관 김영진 장로 믿음과 실천의 삶 역설

전국에서 가장 유서깊은 비정부가기구의 학당으로 유명한 장흥학당(임인규 변호사)의 장흥학당-제485회 명사초청강연회가 지난 4월 25일 오전 7시

전남 장흥군청 회의실에서 관내기관 사회단체 군민 교계 각급 단체 대표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의 초청연사는 전 농림부장관을 지낸 김영진 장로(쌍주대 석좌교수)가 ‘도전과 응전의 삶’을 주제로 아랫마을지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중학교 졸업 후



명동아름다운치과
Myeongdong Aesthete Dental Clinic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업무협약

명동아름다운치과의원

사랑과 믿음으로 진료하는 명동아름다운치과의원입니다.

다년간 임상경력과 함께 믿음의 뜻을 품은 치과입니다.

구강건강을 통한 마음과 치아가 아름답게 웃을수 있도록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진료안내 : 임플란트, 치아교정, 심미보철, 어르신을 위한 틀니, 보철진료
평일 진료시간 : 오전 9:30분 ~ 오후 6:00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야간 진료 : 오후 9시까지

오시는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4번출구 50m
직진 세대빌딩 8층

주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3가 11-3
세대빌딩 8층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150112-중-9266호



문의 / 상담 : 02-777-1224 , 778-122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모회 제6회 정기총회

| 일시 | 2016년 5월 1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아가페성전

(11시부터 등록 12시 점심식사 1시 정기총회)

| 참석대상 |

사모회 임원 및 각 지방회장 사모 전국사모회 회원



고문 박희숙
성문교회



고문 최혜선
다락방교회



고문 김양숙
은혜와진리교회



증경회장 김양란
안디옥교회



증경회장 차경애
진주은평교회



직전회장 김영숙
순복음거제중앙교회



회장 신동신
청신교회



부회장 차추련
안동성곡교회



총무 박경미
순복음승리교회



협동총무 최선희
순복음에수나라교회



서기 오숙희
밝은빛교회



부서기 김귀순
아세아순복음교회



회계 조정애
순복음약속교회



부회계 서수영
은혜중앙교회



감사 이은숙
정읍순복음중앙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신동신 · 총무 박경미 (010-2167-742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평강교회 성전이전 감사예배

| 일시 | 2016년 6월 6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평강교회(담임 정석현 목사)

안성시 공도읍 아촌길 9-9(구주소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24-2)
H.P 010-2372-0091

강사

담임



유봉수 목사
교단 증경총회장
은혜와사랑의교회 담임



정석현 목사
경기남지방회 증경회장
평강교회 담임



교사강습회에 와서 변화되는 교사가 됩시다!!!

교사강습회 "Come & Change!"

주제 : '소망' (살전 5:8)

- 대 상 : 교회학교 교육 담당자 및 교사
- 교 재 : 책자 2,000원, 찬양CD 2,000원, 찬양울동DVD 5,000원
- 특 징 : ① 여름성경학교 활동프로그램 시연 및 자료 제공
② 새로운 찬양 울동 보급 ③ 반관리 특강

- 일 시 : 5월 21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산성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03)
- 전 화 : 031-233-2922 팩스 : 031-223-1793
- 이 메 일 : hello-pastor@hanmail.net
- 입금계좌 : 국민은행 670101-01-433175(한실회)

* 교단 소속교회 참석인원을 사전에 알려 주시면 좌석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홈페이지: www.agpgs.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하여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년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2년4학기 (40학점)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
- ⑦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수시
- ② 원서접수: 수시
- ③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 나길 8
(총회목회대학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수여한다(교단 인정).
- ② 본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3

- 원서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3

홈페이지: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주·야간) 모집**

● 설립목적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수시
- ② 원서접수: 수시
- ③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3

- 원서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새성전 입당예배

강사



정부용 목사
교단 정책위원
대림번영교회 당회장

담임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일 시 2016년 6월 18일(토) 오전 11시

장 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경기도 광주시 현산로 130-40(초월읍 도평리 6-1) 031)765-2791, 010)6202-6312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네팔 카트만두 선교 현장에서

“3천매의 만화전도지가 네팔에 뿌려졌습니다”

지난4월 태풍이 한차례 지나간 후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위기설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는 한국이라 네팔보다 먼저 관심이 쏠려 포탈사이트의 정치면을 우선하여 펼쳐보게 됩니다. 어찌하든 금년도 무사히 한반도를 평화롭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정기에베와 수요일오후에는 12-15명(어린이 포함)의 네팔인들이 모여 찬송, 기도,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사정상 한국어 통역전담인 풀 장로가 EPS(한국과 견기술자 예비훈련소) 강의시간에 맞추느라 필수일 때는 현지 이웃교회 목사나 사누 양의 부부가 번갈아 통역을 하기도 합니다.

선교사의 현실 사정을 감안, 심령은 자주 하질 못하나 그림에도 멀리 코테솔에 살고 있는 드림당인 시엠티 군은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멤버들을 이끌고 계심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78세의 사누의 부친, 바로 이웃의 움막집에 사는 디디 씨, 또 한글강습소에 나가는 학생 1명, 사누 가족, 풀 장로의 가족, 마리의 가족, 에베드리는 저들의 모습을 잠깐씩 훑쳐보면 오직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지한 모습이라 자못 감동스럽기도 합니다.

하나같이 삶에 부대끼는 성도들의 현실 속에서 희망의 꽃대는 다만 우리 주 예수님뿐입니다. 선교사가 경기도 대광리에서 십년간 똑 같은 제목의 설교, 너화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하면



그 위에 더하여 주시리라'를 이곳에서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약 3천매의 만화전도지가 뿌려졌습니다. 앞으로도 김 선교사 개인의 노방전도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늘나라가 임재함을 선포하는 일임으로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변함없이 기도해주시는 동역자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4월의 짧은 소식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상봉 선교사 드림
Reporter Sang-Bong Kim
후원계좌 102434-02-163899(우체국)
예금주 김상봉 457001-01-002622(국민은행)



“지진 전보다 더 안전하게, 더 살기 좋게”

월드비전, 네팔 지진 후 1년 간 38만 5천여 명 지원

4월 25일은 9천 여명의 사망자와 수백만 이재민을 낸 네팔 지진 발생 1년이 되는 날이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 www.worldvision.or.kr)은 네팔 지진1주년을 맞아 지진 전후 사진을 통해 지진 희생자를 기리고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제 사회에 감사를 표했다.

네팔월드비전 긴급구호 총괄 제니퍼 맥캔은 “지난1년 간 네팔에는 500만이 넘는 여진, 6개월 간 지속된 연료 대란, 우기로 인한 구호물자 배송 지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협력으로 월드비전은 총 384984명 피해 주민에게 주거, 보건, 식수, 교육, 소득증대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1년 전 네팔에 발생한 강도 7.8 규모의 지진과 연이은 7.3 규모의 지진은 약 90만 채 가옥을 붕괴시켰으며, 이로 인해 약 8만명 이재민이 발생했다. 월드비전은 1, 2차 지진 진앙지인 고르키와 신두팔초크를 포함한 유엔 지정 최대 피해 10개 지역 161개 마을에서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사업을 진행해왔다. 35개 아동심리지원센터를

통해 9,543명의 아동이 교육과 심리 치료를 받았고, 20,789 가정이 임시거주지를 위한 건축 자재를 지원 받았다. 또한 72,00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았으며, 118,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확보했다.

월드비전은 지진 발생 6개월 후 지난 10월부터 ‘지진 이전보다 더 살기 좋은 네팔’을 목표로 장기재건복구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지역주민과 지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가 재건 복구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재건 시 네팔 주민을 고용해 생계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적 재건복구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과 여성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이 소외 받지 않도록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산모 건강 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50만 지진 피해 아동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지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미래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진 설계 학교 건축과 함께 교사 대상 아동심리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재난 예방을 교육 과정에 편성해 교육할 예정이다.



한교연 제2회 한국교회목회자 탁구대회 개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제2회 한국교회 목회자 탁구대회를 지난 2일(월) 안양시 호계체육관에서 개최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상호 경쟁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나누었다.

스포츠위원장 임은빈 목사의 개최선언에 이어 임은빈 목사와 양영자 선교사의 사구로 막이 올려진 이날 대회에는 예장 통합과 합동, 대신, 기감, 기성, 기침

등 각 교단의 목회자 200여 명이 참가해 개인 단식과 복식 1~3부, 교단 시도별 경기가 치러졌다.

탁구대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대회 총괄위원장 이재형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낙문 목사의 대 표기도, 임은빈 목사(스포츠위원장)의 설교, 최귀수 목사의 광고와 최성욱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임 목사는 운동을 통해 화합과 소통 사람나눔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효종 목사(호헌 총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전 탁구 국가대표였던 양영자 선교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대회에서 단식 1부 리그 우승은 장문수 목사(합동), 2부 리그 우승은 서보영 목사(대신), 3부 리그 우승은 박운암 목사(기성)가 각각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되어 10시 개회예배 후 오후 5시까지 계속 이어져 우승자와 입상자를 가렸다.



루터대, 보령시·효성의료재단과 업무협약

사회공헌사업 등 지역발전 공동추진 및 협력

루터대학교(총장 김영옥)는 지난 4월 22일 충남 보령시청 회의실에서 보령시, 효성의료재단과 지역발전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김영옥 루터대 총장, 김동일 보령 시장과, 박상은 효성의료재단 상임원 대표위원장, 서해 고대도 교회와 마을 이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1832년에 서해 고대도에 발을 디딘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츨라프의 첫 전도지이자 한국 개신교 선교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고대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꾀하고자 이뤄졌다. 협약 내용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고대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교육 및 의료



지원 사업, 상호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 활동, 사회공헌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및 협력 등이 다. 루터대는 고대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생 병원은 섬지역 의료봉사에 노력하기로 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6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6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서교(국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화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좀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 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 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A 책 등-군생활 속에

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가 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 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국 국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보내실 곳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905
e편한세상 103/801

119구조대원,「사랑의 장기기증 서약」

수도권 119특수구조대원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해

“생명을 구하는 구조대로서 장기기증 서약으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는 4월 15일 (금) 15시 중앙 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 국제회의장에서 신규 임용된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장기기증 설명회 및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기기증 캠페인은 지난 4월 1일 중앙 119구조본부에 신규 임용된 31명의 새내기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31명 전원 모두가 사후 각막기증, 뇌사시 장기기증을 약속하며 특별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생명을 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구조대가 되겠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국제회의장에서 포부를 외치는 새내기 구조대원 31명은 장기기증 서약 후 전달받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증을 보며 저마다 웃음꽃을 피웠다. 이날, 구조본부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공동명 기획실장을 초청해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했다.

본부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오는 6월, 중앙 119구조본부 소속 구조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기증 신청자를 파악하여 추가 서약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한 새내기 구조대원 오선택 소방사는 “119구조대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119소방정신을 되새길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며 “사후에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장기기증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119구조대원으로서 의미 있는 출발을 하자는 취지에 동기 전원이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중앙 119구조본부(본부장 조종목)는 “이번 생명나눔 장기기증 서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국민들에게 환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구조대원들의 열의가 국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조그마한 기여를 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 119구조본부는 이번 서약행사를 시작으로 장기기증에 동참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사랑의 장기기증 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대사(Soul-Mate)』를 지정하는 등 점차 높아가는 장기 이식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생명 나눔 실천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린복지랜드 칼릴리빌리지 입주 감사예배

“성경중심의 사상으로 어르신을 보살피겠다”

열린복지랜드(이사장 원종문 목사, 원장 김희신 목사)는 지난 4월 21일 칼릴리빌리지 입주 감사예배를 드렸다. 열린복지랜드는 칼릴리빌리지 입주로 인해, 일생동안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을 이끌어온 어르신들의 마지막 황혼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에 한 발을 더 내딛게 됐다.

이날 1부 예배는 원종문 목사의 인도로 한창영 목사(예장개혁신구대 증경총회장)의 기도, 이평찬 목사(GOODTV 진행자)의 특송, 박위근 목사(동일연합종교포럼 총재, 한교연 증경대표회장)의 ‘칼릴리의 예수 그리스도’란 제하의 설교 순으로 드려졌다.

박위근 목사는 설교를 통해 “열린복지랜드의 원종문 목사와 김희신 목사는 이곳에서 연세가 높시고 기력이 없는 분들에게 음식을 장만하고, 복음지리를 마련해 보살피고 있다”면서 “특히 이곳에서는 매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며 복음전파라는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매일 말씀을 전파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의 기쁨을 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2부 축사 및 격려사 시간에는 이찬규 목사(백석대 직전부총장과 심영복 회장(송실대학교 총동문회장), 고시영 목사(세기총 대표회장)가 축사를 전하고, 김진호 목사(기갑 증경감독회장)를 비롯해 문세광 목사(한국기독교요원목사회 대표회장), 조



성기 목사(송실대총일연수원장, 송목회 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후 신신목 목사(지도자협 대표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사장 원종문 목사는 “어르신들의 마지막 삶이 보다 아름답고 보람 있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열린복지랜드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라며, “이곳의 운영은 성경의 중심사상인 나눔과 섬김, 그리고

사랑실현에 목적으로 어르신들을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원장 김희신 목사는 “입주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하나님과 곁에서 기도해주신 목회자, 성도,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보다 좋은 환경과 최고의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삶을 지원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TS, 감리교신학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감신대 앱(APP) 라디오 설치를 위한 협력 추진

순수복음방송 CTS가 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26일 감리교신학대학교(총장 박종현, 이하 감신대)와 감신대 앱(APP) 라디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감신대 APP 라디오 설치에 필요한 세부 협력 사항 등을 향후 논의하여 빠른 시간 안에 <CTS 스마트 라디오 플랫폼>을 적용한 감신대 APP 라디오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울러, 다음세대를 세우는 CTS의 미디어 선교사역에 감신대의 전문 인력과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감신대의 APP라디오 방송

서비스 시작을 위해 CTS가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다음세대를 살리는 귀한 사역에 감신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전했다.

감신대 박종현 총장은 “CTS APP 라디오 플랫폼을 적용한 감신대 APP 라디오 방송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되기를 소원하며, 감신대의 전문가들을 CTS의 TV와 라디오에 출연시켜 다음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적극 동참하고 더 나아가 사이버신학대학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에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

했다.

한편, CTS가 제공하는 <스마트 라디오 플랫폼>이란 CTS가 제공하는 대용량 클라우드 서버에 사용자 녹음한 음성 파일, 음악 파일 등을 업로드 하고, 그 파일들을 웹상에서 누구나도 손쉽게 1초 단위로 편집하여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적은 인력으로도 기존 라디오 방송국처럼 생방송을 스마트 미디어 및 웹을 통해 송출할 수 있는 스마트미디어 편집 및 송출 시스템을 의미한다.

연락처 : (02)6333-1136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성령충만 받아 능력전도를

담임목사님께서 전도분야에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하여 전도부흥집회를 한다고 하였다. 늘 전도에 부담을 갖고 있던 나는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번 집회를 통해 반드시 효율적인 전도방법을 전수 받으리라!! 은사도 받을 수 있겠다.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은혜받기 위해, 성령충만받기 위해 계속 기도했다. 혹시 우리 선생님이 다른 일로 빠지게 될까봐 노심 주시하며 부흥집회를 기다렸다.

전도세미나가 있는 금요일 교회로 가는 길도 순조로웠다. 금요일 퇴근시간은 정말 엄청 막히는데 다행히 그 날은 막히는 구간도 잘 통과했다. 저녁을 간단히 먹은 후 청소년부 학생들을 데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곧 집회가 시작됐다. 말씀 시간에 다양한 전도 간증 사례들은 참 은혜로웠다.

몸은 너무 피곤한 상태였지만 강사 박영수 목사님의 말씀은 나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대학시절에도 그렇고 노병전도를 나름대로 많이 하긴 했지만 열매는 별로 없었다. 그런데 목사님 전도방식대로 하면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이 신기했고 정말 그렇게 되는지 직접 해보고 싶었다.

가장 인상적인 말씀은 성령충만을 받아야(행1:8) 능력전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동안 나는 성령님께 능력을 받아 전도하기 보다는 나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는 내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다. 세트전도의 강점은 요 1:12 말씀을 붙잡고 향해 바로 선포하면서 영접까지 시키는 사역이었다.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내 힘으로는 연약하거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회 시간에는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셨

는데, 최근에 피로누적으로 아팠던 눈이 기도를 받은 후에 덜 아파서 신기했고 배우자 기도도 응답을 받았다고 믿어 마음이 평안했다.

그 다음 날 오후 전도강의 후 실제 현장전도 동영상 보여주셨다. 정말 강사 목사님께서 가계나 상점에 들어가서 바로 말씀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시키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목사님께서는 세트전도를 40년 동안 하고 있다고 했다. 영접기도를 30년 훈련하면 입이 열리고, 3000년 훈련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전도왕들은 초반에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전도왕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전도현장은 사라지고 강의만 하거나 집회만 다녀서 예전처럼 전도를 못하는 것 같았는데 세트전도는 달랐다. 꾸준히 40년 동안 전도를 해왔다는 것에 놀랐고, 그렇다면 정말 나도 그대로 따라 해보면 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전도강의 후 전 성도가 교회근처 상가지역과 버스정류장까지 전도실습을 나갔다. 밖에 나와 실제로 전도를 하면서 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 까진 할 수 있었는데 바로 영접시키는 부분은 많은 전도훈련과 실습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영접기도문을 확실히 익힌 후에 담담하게 해야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애쓰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리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두레교회 김원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219(어현동 470-16)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택배판매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중-47402호

피부·성형·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색소클리닉 2.여드름클리닉 3.흉터클리닉 4.비만클리닉 5.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수·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주임재교회 새성전이전 감사예배

서울중앙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덕영 목사) 주임 재교회(담임 김규효 목사, 최은향 목사) 성전 이전 감사예배가 지난 4월 30일(토) 오전 11시 주임재교회 새성전에서 드려져 하나님께 서 맡겨주시는 땅끝까지의 복음전파 사역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동교회 행사비 전액의 은혜로운 찬양인도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방회 총무 이기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박정자 목사(성호교회)의 대표기도, 고성웅 집사와 이상희 전도사의 특송이 있은 후, 지방회장 김덕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민 13:30-33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눈을 뜨면 보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여호와수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다"고 말씀을 전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지방회 회계 방은혜 목사의 봉헌기도, 교단 북한선교위원장 성경자 목사의 축사와 지방회 증경회장 임춘동 목사의 권면에 이어 주임재교회 담임 김규효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지방회장 김덕영 목사의 축도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식사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주임재교회는 500평 대지에 건평 1700평 규모로 지어졌다.(이래사진 주임재교회 전경)



선교사 지원, 신학교 지원, 교회 지원 결의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오경덕 목사)는 지난 4월 28일(토) 오전 11시 샘밭교회(담임 이성석 목사)에서 4월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교회의 부흥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정립예배는 권점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동백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 증경회장 최용운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요 1:29-34 말씀을 본문으로 '세례 요한의 영적인 삶'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역하는 것 곧 초심을 지킴으로 사역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새롭게 지방회 회장이 된 이성석 목사(샘밭교회)는 2부 순서에서 제1차 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고 특별히 전 회원들의

동의로 선교사 지원(2), 신학교 지원(2), 교회 지원을 결성하고 기도했다.

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다과와 식사를 함께하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제65차 정기총회 적극 참여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김장수 목사)는 지난 5월 3일(토) 오전 10시 30분 선유생명교회(담임 박행남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신하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5월 16일(월)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박정신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김장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시 37:23-29 말씀을 본문으로 '넘어져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넘어진



다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질 때 오히려 주님께 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기회로 알고 더욱 철저히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것"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서기 오세준 목사의 헌금기도 후 김장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제65차 정기총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안내하고 선유생명교회(담임 박행남 목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홍도와 흑산도 일주,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임홍택 목사, 순복음제일교회)는 지난 4월 24일(주일)~27일(수)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홍도와 흑산도로 춘계야유회를 다녀왔다.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친 후 오후 7시에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 집결한 회원들은 3대의 승합차에 분승하여 다섯 시간을 달린 끝에 중간 기착지인 목포에 도착하였다.

사역과 장거리 주행의 피로를 감안하여 지방회 증경회장 조남영 목사(가평순복음교회)의 배려로 2인 1실의 쾌적한 객실을 제공받은 회원들은 다음 날부터 시작될 곁같은 여행을 기대하며 단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날 7시 50분 홍도로 출발하는 배편을 이용하기 위해 일찌감치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배속선에 올라 수 없이 떠 있는 다도해의 섬 숲을 헤치고 나아가니 비로소 홍도여행에 대한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미세먼지가 감하고 파도까지 잔잔하여 하나님께서 여행을 기뻐하시고 도우시는 것 같았다.

2시간 40여분을 달려 도착한 홍도는 아름다운 신비로움 그 자체였다. 미리 예약

한 숙소에서 짐을 풀고 현지 특산물로 차려진 음식으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마친 후 순복음원도교회(담임 최철진 목사)에 들러 기도회를 가졌다.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부흥 및 성도들의 축복된 삶을 위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한 후 기대하던 홍도 유람선에 올랐다. 2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된 홍도 일주 관광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일만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기기묘묘한 형상으로 각기 자태를 뽐내고 있는 기암괴석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드러내며 탄성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안내인의 멘트였다. 작년 가을 이래 지금까지 오를려던 안개도 없이 시야가 맑고 파도가 잔잔했던 날이 없었고 오늘날 사람들은 최고로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의 작정이요 역사하심이 아닐 수 없게 절로 머리 숙여 감사했다.

유람을 마친 후 부두에 있는 허너 핫거라에서 인심이 넉넉한 관사님이 푸짐하게 덤으로 얹어 주는 자연산 전복과 소라, 해삼을 맛보고 준비해 간 낚시장비를 챙겨 경험 많은 원도교회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 섬 반대편 몽돌해수욕장으로 향했다.

붉은 빛이 도는 몽돌로 이루어진 해변은 색다른 풍광으로 다가왔다. 때마침 해변으로 몰려든 숨어들 현지 목사님의 출처기

낚시로 이른 팔복만한 크기의 월척이 연이어 낚여 올라오자 해변은 환호 소리로 가득 찼다. 회원들도 낚시법을 익히며 도전한 결과 40여 마리의 월척을 함께 거두는 기쁨을 누렸다.

즉석에서 회를 떠서 준비해 간 초장으로 맛을 보니 육지에서 먹던 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쫄깃함과 담백함에 빠졌다. 숙소로 돌아온 우리 일행은 홍도 종력을 따라 돌아놓은 신책로를 걸으며 노을진 홍도의 야경을 바라보며 망중한을 즐겼다. 아제와 같이 2인 1실의 편안한 숙면을 취한 후 셋째날 아침 다음 목적지인 흑산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다.

30여분 달려 도착한 흑산도는 신안군의 본섬 당게 홍도에 비해 훨씬 큰 섬이었다.

신안군의 복음화율이 전국 최고라더니 과연 버스에서 만나는 승객들도 대부분 기독교인이어서 반가웠고 서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으며 즉석에서 그분들의 특산물을 주문하는 일이 이루어져 기쁨이 배가 되었다. 저녁 식탁은 더욱 풍성한 가운데 현지에서 조달한 홍어회가 곁들여지면서 흑산도의 풍미를 마음껏 맛보았다.

잠시 휴식을 가진 회원들은 증경회장 조남영 목사(가평순복음교회)의 인도로 기도회를 가졌다. 교단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경기중앙지방회 신임회장을 비롯한 임원

열린순복음교회 창립예배 지역복음화 위해 헌신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 열린순복음교회(담임 김미연 전도사)는 지난 4월 28일(목) 오후 3시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431-9번지에 위치한 동교회 새성전에서 창



립예배를 드리고 땅끝까지의 복음전파사역을 위해 지역복음화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창립예배는 박용열 목사(오성시랑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김효신 목사(천양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영강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골 3:1-4 말씀을 본문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세상 것을 찾고 구하며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중요성과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신동훈 목사(임마누엘교회)의 권면, 김기인 목사(벤엘교회)의 축사, 최정용 목사(민음교회)의 헌금기도, 열린순복음교회 담임 김미연 전도사의 감사 인사말이 있었다.

김 전도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지방회 여러 임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열심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였다.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의 축도 순서로 모든 예배를 마친 후 열린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 하며 모든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진들을 위하여, 지방회의 화목과 연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이어서 증경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와승리교회)의 진행으로 찬양과 나눔을 통한 교제의 시간 후 마무리 기도로 은혜롭게 마쳤다. 때마침 내리는 봄비는 저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정감

있는 빗소리와 함께 통나무집에서의 마지막 밤을 아늑하게 감싸는 듯 했다.

마지막 날 아침 일찍 흑산도 소망교회에서 제공한 전복죽으로 아침식사를 마친 후 수요일 각 교회별로 드려질 수요일예배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 목포로 나가는 여객선에 몸을 실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바다는 잔잔하여 한 사람도 배멀미를 겪지 않고 편안한 여행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3박 4일간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린다. 할렐루야!

3박 4일간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린다. 할렐루야!



신학포럼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부설 ACTS신학연구소

기독교교육은 성령과 동행... 전인을 변화시키는 교육

지난 4월 18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부설 ACTS 신학 연구소 주최 제 3차 ACTS 신학포럼이 “기독교 중심진리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ACTS 신학포럼은 본교 신학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알리는 논문발표회로서 “ACTS 신학공관”에 관한 주제들에 대해 대학기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고 토론되는 학술의 장이다. “ACTS 신학공관”은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공관함으로써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신학-신앙 운동이다.

제3차 ACTS 신학 포럼은 한상화 교수(신학연구소장, 조직신학)와 이숙경 교수(기독교 교육)의 논문 발표에 이어 정홍열 교수(조직신학), 전병철 교수(기독교 교육)와 함께 4인의 패널토의 후 공개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조직신학 분과 한상화 교수는 “ACTS 신학의 정체성: 신학공관과 기독교 중심진리”라는 논문을 통하여 ACTS 신학공관 운동을 단계별로 개관하고 이 운동의 핵심 개념인 “기독교 중심진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실재성 전체로서 하나의 신학적 주제나 교리나 이론으로 환원할 수 없는 포괄적이며 선형적이며 다차원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강조하였다.

중심 진리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신학공관의



분과 간 연구의 기반이 확고히 되고 어떠한 시대적, 신학적 주제들도 모두 이 진리와 관련시켜 연구할 수 있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정홍열 교수는 기독교 종교는 본래 역사적으로 “구원”이 중심이 되는 종교임을 설명하며 이런 의미에서 신학공관의 중심 개념인 복음신앙을 통한 구원 자체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독교교육 분과 이숙경 교수는 “‘구원하는 믿음’의 성격에 비추어 본 기독교교육의 근본 원리 및 과제”에서 기독교교육의 기초가 되는 믿음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검토하고 나서 기독교 믿음 이해로서 칼빈의 정의를 기반으로 “구원하는 믿

음(saving faith)”을 제시하였다.

이 교수는 기독교교육의 근본 원리로서 성경에 근거를 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며 전인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라고 밝히고 기독교교육의 과제로서 상황과 사람들을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인지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닌 전인적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식을 통한 인격의 변화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전병철 교수는 기독교교육은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학문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기독교 중심 진리와의 관계성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던졌고 끝으로 이숙경 교수는 이러한 연구과제와 함께 한국 교회 현재 위기에 대하여 목회자들의 인식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영상선교후원 교회와 성도들의 이름 새긴 동판 제작

CTS, 영상선교후원 동판 제막식 개최

한국교회 대표 영상선교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CTS 영상선교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신 교회와 성도들의 이름을 새긴 동판 제막식을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CTS멀티미디어센터 1층 로비 층에서 진행된 영상선교후원동판 제막식 행사에는 CTS영상선교사, 시청자, CTS인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영상선교후원 동판 제막식은 <CTS WEEK> 방송시간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됐다.

이날 제막식에 참석한 CTS영상선교사 김용진 장로는 “CTS를 늘 시청하면서 많은 목사들로부터 받은 은혜에 축복을 누리고 있던 중,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영상선교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CTS의 소식을 접한 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달려와 CTS에 후원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CTS를 통해 흘러온 복음으로 여태껏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내을 수 있었던 것이기에 마땅히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CTS 후원에 대한 중요성과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CTS 광고사업팀 김민태 팀장은 “CTS직원으로서 먼저 영상선교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물질로 후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후원을 시작하게 되



었다”고 전하며 “많은 후원자분들의 정성과 기도에 힘입어 시청자들이 회망하는 복음사역에 더욱 더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도약과 성장의 미래 20년의 사역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다짐하고 약속한 ‘다음세대를 세우는 미디어 선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청년 CTS는 후원자분들과 함께 한 첫 걸음을 떼려한다”며 “다음세대에게 회복을 위한 CTS 미디어선교에 앞으로도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다음세대를 세우는 미디어 선교 CTS는 4월 25일(월)부터 29일(금) 주간을 ‘CTS WEEK’로 선포하고, 매일 3시간 동안 생방송을 진행하여 시청자들에게 말씀과 은혜가 가득한 특별한 주간을 선물한다.

세계를 교구 삼는 CTS의 복음전파 사역을 위한 말씀과 중보기도 시간을 갖는 등 CTS 사역에 동참할 동역자를 모집하고 있다.

CTS는 각 지역 케이블과 SkyLife 183번, IPTV(KT QOOK 236번, SK BTV 551번, LG U+ 180번), 해외위성, CTSAPP를 통해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다.

사설

제65차 성총회에 바란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5차 정기총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벤전 5:8)라는 주제로 오는 16일(월) 은혜와진리교회 인양성전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향후 1년간 총회를 위해 한신할 새 총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해외선교사 파송식도 거행될 예정이다.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고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동성에 용납 등의 이단 사설들이 기세를 더해 가고 있는 시대에 참된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교회의 신뢰가 무너지고 성장 동력의 퇴조는 여전하지만 시원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음도 사실이다. 급속한 시대 변화로 신앙과 도덕적인 가치에 대한 금기 기준도 후퇴하고 있어 교회의 경각심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국내 대 교회 지도자총회 지도자들의 모임인 총대들 의식 조사 결과 음주와 흡연 및 혼전순결 유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21년 전보다 2~4% 포인트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한국교회의 병통은 교회 지도층의 영적 각성이 가장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 세대의 감소 추세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도 설상가상 격으로 앞길을 가로 막고 있는

상황임이 이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이런 풍조 속에서 종교개혁의 대상인 한국 천주교는 5백만 신자 시대를 구가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계속 자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영적 현상이다. 한국 개신교는 실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될 시대에 처해 있다.

내년은 종교개혁 5백주년이 되는 해다. 각 교단들은 벌써부터 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보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 교단도 이 뜻 깊은 시점을 바라보며 올해 성총회를 개최한다. 우리 교단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종교개혁의 불꽃만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활활 태우며 달려가는 성령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임을 자부하고 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고 하셨다. 제65차 성총회는 심기일전하여 종교개혁 5백주년 전야가 되는 올해, 일대 각성과 새 출발로 한국교회에 시원한 바람을 불러 넣겠다는 결단과 각오로 모두들 임해야 하겠다. 남은 자 7천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켰다. 우리는 ‘한국의 남은 자 교단’이라는 자부심을 새롭게 다지는 성총회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하겠다.

아동·청소년들을 안아 주는 교회가 되자!

가족사랑, 어린이 사랑, 주님 사랑의 5월이다. 하늘은 푸르고 신록이 자태를 뽐내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픔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전국적 실태를 제조사 한 결과 새로이 35건의 학대판은 어린 아이 사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4.25)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21부터 4.15까지 전국의 초·중·고교 미취학 아동과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 2천892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해 12.21. “11살 학대 소녀 탈출 사건”(인전)이 세상에 보도되면서 정부가 조사에 나서게 되었다. 아동 학대 문제가 우리 사회의 병통으로 진단되는 데는 ‘목사’도 한 몫 했다. 지난 2월 3일 “부친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또 다시 ‘목사가 이럴 수가’하는 탄식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메아리쳤다.

온 세상 경악과 분노 속에, 교회는 실로 부끄러워 났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마귀는 아동 학대라는 극악한 비행을 통해서도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음을 본다. 참회의 눈물로 5월을 맞이할 할 우리 한국교회의 처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ם 아픈 시대는 우리 청소년 전체의 병리적 현실에도 있다. 가족 해체, 입시 위주 교육으로 아이들의 심신이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울과 불안으로 지속적인 상담·관리가 필요한 ‘관심’ 학생이 최근 3년간(2013-15) 25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는 등 위험 수준이 높은 ‘우선 관리’군이 14만 명이다. 그리고 매년 청소년 120여 명은 자살을 택한다는 것이다. 사랑의 5월에, 교회가 아픈 어린이 청소년들을 찾아 나서자. 그리고 제일 먼저 안아 주자!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2016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교단 정책위원장

교단 총회장

지도교문

회장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전동용 목사



김인한 목사



신재영 목사



김건수 목사

- | 대표교문 |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
- | 중경총회장 | 김상용 목사(청주중앙순복음교회)
-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
- 배진기 목사(안디옥교회)
- 임종달 목사(전주순혜와진리교회)
- 최광덕 목사(일산은혜교회)
- 이창재 목사(진부제일교회)
- 김인구 목사(은혜와평강교회)
- 김용덕 목사(영동제일교회)
- | 총회장 | 진등목 목사(새소망교회)

- | 지도교문 | 김인찬 목사(청신교회)
- 조남영 목사(가평순복음교회)
- 정부용 목사(대림뽀엘교회)
- | 중경총회장 | 엄기설 목사(은혜와찬양교회)
- 김희대 목사(간현교회)
- | 회장 | 신재영 목사(새김천교회)
- | 상임위원 | 신동숙 목사(순복음임마누엘교회)
- 오승옥 목사(천안서복교회)
- 황용연 목사(은혜와평강교회)
- 정석현 목사(평강교회)
- 김임복 목사(순복음무등교회)

- | 부회장 |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
- 김기진 목사(제천순복음양문교회)
- 서정복 목사(남원중앙교회)
- | 상임총무 | 김건수 목사(순복음예수나라교회)
- | 상임부총무 | 윤혜영 목사(순복음추천미교회)
- 김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회)
- | 사무국장 | 최장식 목사(순복음복된교회)
- | 실무총무 |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
- 신복희 목사(순복음화평교회)
- 박홍렬 목사(오성사랑교회)
- 윤성수 목사(진주순평교회)
- | 서기 | 성기찬 목사(동울산순복음교회)

- | 재무 | 조은혜 목사(순복음빛된교회)
- | 회계 | 양은례 목사(창조교회)
- | 감사 | 김종연 목사(은혜교회)
- 최남성 목사(동강순복음교회)
- | 회원 | 권택선 목사(순복음하은교회)
- 김연옥 목사(행복한선교회)
- 이화숙 목사(전주순복음우리교회)
- 임영철 목사(순복음승리교회)
- 홍현자 목사(사랑과평화교회)
-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
- | 준회원 | 정한우 전도사(순복음빛된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도시지역 미자립교회(성도수 20명 이하) 및 농·어촌, 산간벽지, 낙도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010-4420-8650 /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010-3698-57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5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주제 :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벧전 5:8)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65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 | |
|---------------------------|---|
| 1. 총회일자 : 2016년 5월 16일(월) | 4. 사무총회 : 5월 16일(월) 오후 2시 |
| 2. 등 록 : 5월 16일(월) 오전 11시 | 5.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2 |
| 3. 개회예배 : 5월 16일(월) 오후 1시 | 6.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교역자, 장로) |

2016년 4월 2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진 등 용

5월 15일(주일)을 총회주일로 지킵시다!!!

- 총 회 주 일 _ 2016년 5월 15일(5월 셋째주일)
- 대 상 _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산하 지방회 회원교회
- 총회주일안내 _ 전국 각 교회에서 홍보 현수막 및 홍보전단, 주보 등을 활용해 교단의 성령충만한 사역 운동을 알리고 지역사회 복음화의 계기를 만드는데 활용토록 함.
- 헌 금 구 분 _ 특별헌금을 교회 형편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8033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진 등 용
총 무 목사 김 병 목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하나님성회 총회본부 <http://www.aogk.org>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email:aogk@aogk.org홈페이지 : www.ucts.org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신입생
- ⑥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총회목회대학원 졸업 후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